

불교가 우리 사회에 접근해 가는 변화의 상징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탐주심인당

불교는 부처님이 가르쳐준 것을 실천해 깨달음을 얻는 종교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모습은 사라지고 불상을 보고 잘되게 해달라고 비는 모습이 됐다. 그런 생활불교가 지속되다 보니 불상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중생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존재가 됐다. 중생심은 또 불상을 분별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곳이 기도처로 영험하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생겼다.

불교에서 불상은 무엇인가? 불상은 예전 깨달았던 부처님의 모습을 중생들에게 소개하는 모델이다. 수천 년 전 진리와 일체가 되는 삶을 산 성인이었으니 본받자고 만든 것이다. 그런데 본받을 생각을 안 하고 불상 앞에 와서 빌기만 한다. 그 길이 힘들기 때문에 쉽게 복을 비는 신앙으로 치우친 것임을 알지만 불상이 불교의 전부로 생각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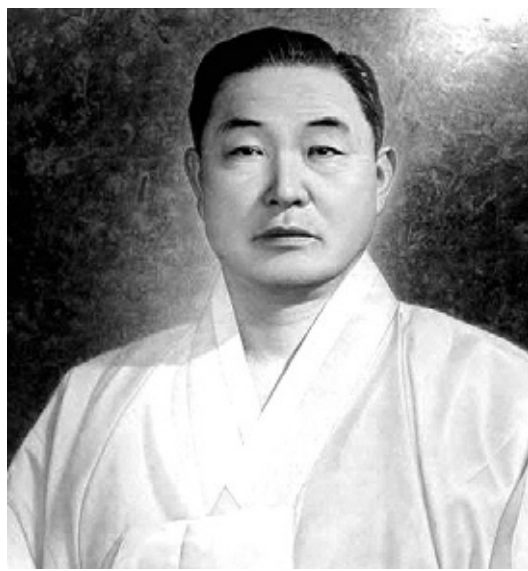
불교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은 절대자에게 구원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고 이미 구원돼 있는 존재로 생각한다. 우리의 존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자기 속에 구비돼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은 자신의 어리석음 때문이다. 욕심에 눈이 가리어 물질만능에 휘말리면 암흑세계를 헤매는 비극으로 이어지지만, 본 모습에 덮여있는 먼지를 없애면 찬란한 구슬의 본성이 빛나게 된다. 그런 무명을 없애 깨달음을 얻자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이다.

지하철 6호선 월곡역 3번 출구로 나와 300m쯤 걸으면 웅장한 건물 하나가 보인다. 3층탑 모양인데 사스럽지 않다. 전통 사찰양식과 다른 모습을 한 대한불교진각종의 문화전승관이다. 정승관 옆으로 진각종 수행도량인 탐주심인당이 있다. 진각종에서는 대적광전, 대웅전과 달리 심인당(心印堂)이라 한 것은 불교의 법당이 자신의 마음을 찾는 곳이기 때문이다. 심인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그것은 사물을 보고 '좋다', '나쁘다'라고 느끼는 일상의 마음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마음이다. 불교에서는 이 마음을 스승과 제자가 서로 이어받아 범통을 계승한다는 의미로 쓰였다. 그런 의미 이외에도 심인에는 진인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간결한 마음의 진언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그런 심인은 나에게 있는 마음이 부처님이란 의미를 상징한다.

진각종은 1947년 6월 14일 회당 대종사 손규상에 의해 세워졌다. 1902년 5월 10일 울릉도에서 태어난 그는 36세가 되던 1937년 장남이 세상을 떠나자 신앙심이 돈독한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불교에 귀의했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삶의 계기가 돼 깨달음을 구하는 생활로 일관했다. 이후 10년 동안 불법의 체득에 심신을 바친 결과 1947년 5월 16일 경북 달성군 성서면 농림촌에서 육자진언(六字眞言)을 통해 불법의 진리를 깨달았다.

진리를 깨달은 대종사는 46세가 되던 1947년 6월 14일부터 교화를 시작했다. 처음 도량의 명칭은 참

진각종 법당은 심인당으로 금당법계 비로자나공전으로도 불려 불상을 모시지 않은 까닭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기 때문



회당 손규상 대종사는 1947년 육자진언으로 깨달음을 얻은 뒤 진각종을 세웠다.

회원(懺悔園)이었다. 대종사는 진리의 가르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이 최고라고 하는 번뇌에서 벗어나 참다운 자신을 찾는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자신을 철저하게 발견할 수 있는 '참회'를 강조했다. 자신의 허물을 진정으로 참회해 자신의 참 모습을 드러내면 자신과 모든 만물과의 관계를 이해하게 되고 그때야 자신이 모든 만물로부터 은혜를 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다. 그 후 1953년에 참회원의 명칭을 대한불교진각종으로 바꾸면서 한국 밀교의 중흥을 표방했다.

심인당에 가면 여느 사찰과 달리 불상이 없다. 불상이 없는 것은 심인당은 우리들의 마음이 있는 곳이고, 마음이 부처이므로 그곳이 바로 부처님이 계시는 법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각종에서는 심인당을 금강법계 비로자나공전이라 한다. 공전의 중앙에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동방에 아축불, 남방에 보생불, 서방에 아미타불, 북방에 성취불이 계신 법의 세계를 의미하므로 불상을 모실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곳에서 수행할 때는 단순한 기복적인 신앙보다는 내 마음을 알고 그것을 고치고 바르게 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먼저 마음을 밝히고 고치면 오히려 중생들의 근심도 사라지고 물질적인 생활이 넉넉해지기 때문이다.

처음 심인당에 오는 사람들은 심인당의 외형이 일



서울 하월곡동에 자리한 진각종 탐주심인당. 심인당은 자신의 마음을 찾는 곳으로 심인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뜻한다.

반적으로 보아 오던 사찰과 다른 것을 보고는 매우 의아해 한다. 외형이 다른 것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의 분별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찰의 양식은 목재가 우리의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재료로 쓰일 때 지어진 것이다. 자연히 그 역사가 오래돼 우리의 눈에 익숙하게 됐다. 그리고 그 건물에 여러 가지 색을 칠해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우리들에게 익숙하다 보니 사찰은 기와집에 단청이라는 생각이 고정됐다. 이런 잠재된 의식으로 심인당을 보면 사찰과 다른 양식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다.

심인당 역시 건축양식에서 보면 전통양식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다. 심인당의 양식은 팔각지붕과 우진각지붕이 합쳐진 우산각지붕이라 해서 새롭게 시도된 양식이다. 단청이 없고 현대식 구조를 하고 있어 생소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도심포교의 새로운 건축양식으로 자리할 수 있다. 우리가 처음 상투를 찌르고 서양식의 옷을 입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나라가 망했다고 한탄했다. 그런데 지금은 한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됐다. 명절에도 점점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건물도 그와 같은 흐름을 지니고 있다. 산과 강이 조화를 이루는 곳은 전통양식의 건물도 아름답고 정취 있게 보인다. 그렇지만 현대처럼 빌딩 사이에 어울리는 건축양식이 아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는 그 시대에 맞는 건축양식의 변화

가 필요하다. 심인당의 외형은 불교가 우리 사회에 접근해 가는 새로운 변화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심인당의 특징은 도심에 있다는 점이다. 보통 불교하면 산 속에 있는 사찰과 그 곳에서 울리는 종소리나 풍경소리를 생각한다. 사실 그것은 오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온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익숙한 탓이다. 부처님은 오히려 수행도량은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심인당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회당 대종사의 깨달음과 교화의 행적에 관련이 깊다. 회당 대종사는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성을 찾았고, 그것을 주위 분들에게 가르치면서 교화가 이루어졌다.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도심 속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교화의 도량인 심인당도 도심 속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심인당이 도심에 위치할 수밖에 없는 까닭은 회당 대종사가 제시한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실천 때문이기도 하다. 대종사는 기존 불교의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그것은 기존 불교의 수행 공간 용어 그리고 의식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확연히 다른 불교의 모습을 제안한 것이다.

생활불교는 중생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맞는 새로운 불교신앙을 세우는 일이다. 불교는 전문 수행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 쉽게 접

근될 수 있도록 쉬워야 한다. 중생들이 단순히 수행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수동체가 아니라 스스로 불교를 알고 행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제를 지닐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려면 수행도량이 멀리 있어서는 안 된다. 산 속의 사찰처럼 멀리 떨어져 어찌다가 찾아가는 그런 도량이라면 생활 불교로서의 성격보다는 기복적인 성격이 강해질 수 있다.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신앙은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을 달라지게 한다. 현실 세계를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임을 확인시켜 준다. 그런 현실적인 불교관이 사회적인 실천으로 강조된 것이 실천불교이다. 이것은 개인이 긍정적 사고를 지닌 다음 그 역량이 사회적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개인보다 사회유지에 우선순위를 두어 개인적 욕심에 의해 공동 사회의 일이 방해받아서 안 되며, 공적인 법칙을 어겨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일들을 경계한 것이다. 이런 의미로 본다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폐단의 책임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으며, 그것을 없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불교실천의 본질인 것이다.



김경집/진각대 교수

백암리 경전

이 책은 요약이 아니다. 중요한 경전의 전체 또는 일부분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철저히 저자의 개인적인 첨가를 배제했다.

책의 특징

1. 불교의 근본 경전인 백암리 대장경의 다섯 니까야와 율장에서 선별하여 한 권으로 엮었다.
2. 교리별, 주제별로 분류하여 공부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였다.
3. 부처님 모습을 진솔하게 보여주는 내용을 선별하였다.
4. 주석 없이도 읽을 수 있도록 쉬운 말로 번역하였지만 꼭 필요한 주석은 짧게 달아 번거롭지 않게 하였다.
5. 부록에 백암리 경전과 연관된 내용/주제별로 자세하게 찾아보기와 고유명사와 낱말 찾아보기/부처님의 활동 지역과 아소카왕의 담마 사절단을 파견한 지역을 정리한 지도 등을 수록하여 이 한 권으로 백암리 경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두루 갖추도록 하였다.

어려운 삶을 사는 모든 이들에게 위안과 평화와 행복을 선물합니다.

‘백암리’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언어이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언어 그대로 전승되다가 쓰여진 경전이 백암리 경전이다.

일야 역편 | 신국판 양장 | 752쪽 | 값 28,000원

당신의 마음은 몇 개인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아니 수만 번 이랬다저랬다 간사하게 변하는 마음의 정체는?
내 마음은 어디에?, 이러한 궁극증을 파헤쳐 마음의 본체 탐구를 위한 책.

마음공부 첫걸음

| 유식 입문 |

마음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는 않다

글 : 김명우
224쪽 | 값 9,000원

불자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콘사이스판 불교사전』

불교의 모든 지식이 이 한 권에 다 들어 있다.

- 총 1,216쪽, 4,950여 항목을 수록했다.
- 각 단어에 대한 설명이 상세·명확·풍부하다.
- 영어 세대를 위해 각 단어의 개념을 영어로 요약 표기했다.
- 콘사이스판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다.
- 크기는 작지만 내용은 백과사전 못지않게 풍부하다.

김승동 편저 | 1,216쪽 | 4,950여 개 항목 수록 | 고급 양장 | 값 38,000원

민중사 | 구입 문의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58번지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 전화: 02-732-2403~4 · 팩스: 02-739-7565 · 홈페이지: www.minjoksa.org · 이메일: minjoksa@chol.com · 농협 053-02-109450 (예금주: 윤재승)